

‘사교육’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영향 분석*

강태중(姜泰重)**

송혜정(宋慧靜)***

김진경(金眞敬)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한 대학을 사례로 삼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사정관전형 집단)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으며 ‘사교육’에는 어떤 양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이때 조사 분석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 다른 ‘일반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비교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초점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직접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피는 데 있었으며,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입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추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의존의 경향을 낳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견을 긍정해주지 않았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수요를 늘리는 기미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고려해야 할지 제안하였다.

주요어: 입학사정관 전형, 사교육, 대입제도, 비교과 활동, 입학사정관제

* 이 논문은 2011년 중앙대학교 입학처의 요청과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4)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사

I. 서론

2007년 10개 ‘시범사업 대학’이 정부의 지원 아래 도입하기 시작한 입학사정관 전형 양식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전국 입학 정원의 14%에 가까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양식이 될 만큼 확산되어 왔다(한국대학신문, 2012. 10. 18). 캠퍼스 단위로 조사해보면, 첫 시범사업 연도(2007학년도)에 입학사정관 전형을 채택한 캠퍼스 수가 10개에 불과했지만 2013학년도에 그 수는 125개에 이르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2. 6. 21).

입학사정관제가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 확산되어 감에 따라 이 제도가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경계가 당연히 요구되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2011년부터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로 입학사정관제를 발전 정착시키도록 각 대학에 요청하였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질문은 이 제도가 거론되고 도입되기 시작할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정책을 구안하고 추진해 온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거나 유발할 여지가 있더라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그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판단에 수긍하지 않고 이제까지의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에 상응하는 사교육 행위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은 이 전형 양식이 기본적으로 지원자들의 다양한 ‘스펙’을 ‘불투명하게’(또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성질을 지닌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인식되었다. 지원자들이 경쟁자들을 능가하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특히 이때 우월한 스펙은 학교가 마련하거나 안내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능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 준거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불투명한 전형’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불가피하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인식에 근거한 입학사정관제 비판(사교육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은 아직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런 주장은 입학사정관제의 성격과 구조를 바탕으로 추론해낸 문제제기의 상태에 있다. 그 가설적 비판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런 비판이 예견하는 대로 실지로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사교육(컨설팅) 마케팅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움직임이 입학사정관제의 문제를 증폭시킬지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 정책 당사자들 역시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짐작하였고,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테

면 대학교육협의회는 2010년에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을 공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학교 교육 안에서의 활동에 국한하도록 요청하고,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정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이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비들이 실지로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지 확인해보려는 시도이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문제

이미 적은대로, 이 연구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시도한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거론되고 도입되기 시작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이 관계를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보다 입학사정관 제도의 운영 사례와 실태,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 속에서 논리적이고 사변적으로 추론되어져 왔다. 이런 사정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현실적으로 요청된다.

사교육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논의되는 근황을 살피고 연구의 출발점을 확인하는 견지에서 여기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두 범주로 모아 구분하여 읽고 정리하였다. 한 범주에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를 연구문제로 직접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기대를 받고,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될지를 함축하고 있는 연구들이 속한다. 다른 한 범주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를 연구문제로 적시한 것들이다. 모두 그 문제를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다루면서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를 좀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구도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1. 입학사정관제의 성질과 사교육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는 이 제도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관심 둘만한 주제를 다룬 연구라면 대부분 언급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당시부터 대학입학 전형에서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받았고, 이러한 기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연구들도 제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데 사교육과의 관계를 당연하게 고려하였다.

이와 같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운영, 정착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논급하게 되는 것은 이 제도

가 수용되는 우리 사회의 맥락이 다른 사회와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제도이든지, 특히 다른 사회의 제도를 원형으로 삼고 있는 제도일수록 그것이 적용되는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수용되기 마련인 것처럼 입학사정관제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은 직업을 갖거나 더 나은 사회적 기회(출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으로, 대학 입학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기대되어 왔다. 또한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은 입학자 선발이 보편적인 준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형도구(자료)가 무엇이고, 그 도구(자료)가 어떤 과정으로 활용되어 어떤 점수(결과)를 산출하는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누구나 똑같은 전형 과정을 거쳐 얻게 되는 점수를 근거로 당락의 선은 명백하게 그어져 공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굳혀 왔다(강태중, 2011).

사교육의 개입은 대학 입학 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기대에 도전이 되었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도록 대학입학 전형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대학입학 제도는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고, 전형의 기준, 자료, 방식 등 모든 전형 과정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선발에서 대학의 자율과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교육인적자원부, 2004)에서 정부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가속시켜왔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환영하는 입장(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추진하는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 등)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미 적은 대로 지원자 개개인을 고유하게 배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질을 지녔다는 점에서 사교육 보다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주장하지만(김도식, 2009 ; 교육과학기술부·대학교육협의회, 2009 ; 박제남 외, 2008), 많은 연구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지닌 성질이 파생할 사교육 행위를 경계하고, 이러한 성질들이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는 쉽게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강태중·이성호·김동민, 2009 ; 김승태, 2010 ; 박혜림, 2009 ; 배성아·안정희, 2011 ; 안선화·정일환·주동범, 2009 ; 양성관·정일환, 2007 ; 정일환·김병주, 2008).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본적으로 지원자들의 다양한 '스펙'을 '불투명하게(opacity)' 또는 '주관적으로(discretion)' 평가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능가하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평가 준거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 불투명한 전형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려면 불가피하게 전문적인 '컨설팅'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을 낳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미국과 한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비교하면서, 미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지원자들을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선발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으며, 이 재량이 발휘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실증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형 방식이 특정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그 의도대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특정 계층을 예외적으로 예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대학의 재량을 인정하는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문화는 과도한 진학열로 학생선발에 있어 타당성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내재적 성질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사교육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도 당연히 경계가 요구되었다.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등 정책당사자들도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짐작하였고,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테면, 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2010)'을 공표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요구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학교 교육 안에서의 활동에 국한하도록 요청하고, 전형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다(대학교육협의회 보도자료, 2010. 4. 6.).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정착과 확산은 이 제도의 내재적 성질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구하고, 대학입학 전형으로서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도 도입의 주체인 대학들이 대학입학 전형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는 사회의 요구를 의식하면서 입학사정관제의 원형을 한국식으로 변안하고, 한국식으로 변안된 입학사정관제를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게 시행한 결과에 달려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다.

2.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대비들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켜 준다면, 입학사정관제가 대학입학 전형으로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유리하다면, 이런 결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관심을 거스르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이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지만 선행연구들 가운데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의 관계에 본격적으로 주목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여

기에는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의 관계를 인식 조사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연구(안선희, 정일환, 주동범, 2009)와 직접 이 관계를 실증해보려고 시도하는 연구(이필남, 2011)가 있다.

안선희, 정일환, 주동범의 연구(2009)는 선행연구와 현행 입학사정관 전형 방식을 근거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특징을 기술해내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어떤 특징이 사교육비를 증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는지 교육전문직, 진학담당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사교육 기관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입학사정관제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의 개별화, 장기화, 종합화, 그리고 전형기준과 방법의 불확실성과 같은 특징들은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우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를 위해 사교육 기관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교육이 전형에 필요한 자료(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학업계획서 등)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학교를 통한 입학사정관제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문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입학사정관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안선희, 정일환, 주동범(2009)의 연구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접근을 통해 그 관계를 실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시행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것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준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형의 대상이 되는 학생을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입학사정관제와 사교육 행위의 관계에 직접 주목하면서 이 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필남의 연구(2011) 정도이다. 이필남의 연구(2011)에서는 2011년 한국교육중단연구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이 있는 고3학생의 사교육 수요가 그 외 학생에 비해 더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사교육비도 적게 지출하였지만 사교육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통제하면, 지원계획 여부는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정책의 기대효과가 실증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정책효과를 보다 타당하고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실제 지원한 학생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을 포함하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학생이 다른 일반적인 전형에 지원할 계획을 가진다면 사교육 행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연구문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로서는 적어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시도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어떤 정책 지향을 가질 필요가 있을지 논의해 볼 것이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들을 함께 고려하는 조사 분석을 시도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일반적인 대입 전형이 유발하는 사교육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이야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조사 분석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의 접근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한 가지는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 접근하거나 준비하는 양상에 비추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그러한 인식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행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것으로 인식되느냐에 따라 대입 전형에 대한 대응 전략이나 준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가지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행위(참여와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비슷한 환경의 다른 경로 입학생들과 어떻게 비교되는지 분석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정해 보는 것이다.

다음에 진술하는 연구문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관심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연구가 답을 시도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유사한 배경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채택했던 대입 준비 전략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2) 유사한 배경의 학생들과 비교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사교육 참여와 비용 지출)의 경향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 3)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다른 경로로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표집: 조사 분석의 대상

앞에서 진술한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이 연구가 조사, 분석하는 대상은 A대학¹⁾에 입학사정관 전형²⁾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하 '사정관전형 집단') 119명과 그 외 일반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하 '비교집단') 194명이다. 사정관전형 집단은 입학처의 도움을 받아 전집을 대표할 수 있는 분포를 보이도록 표집 하였으며²⁾, 비교집단은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도록 표집하려고 애썼다.

대학 입학을 겨냥한 사교육 행위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변인들(전공계열, 성, 출신 학교 소재지, 가정배경)을 중심으로 두 집단의 표집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두드러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다음 <표 1>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사정관전형 집단에는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이, 비교집단에는 자연공학계열에 속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다. 가정배경 또한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두 집단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1>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의 표집 분포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전 체	명(%)
계 열	인문사회계열	50(42.0)	70(36.1)	120(38.3)		
	자연공학계열	45(37.8)	86(44.3)	131(41.9)		
	경영경제계열	24(20.2)	38(19.6)	62(19.8)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 1) 서울시내 중상위권 대학. 전체 학생의 약 8% 정도(정원 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들의 잠재적 특성, 학교활동, 다양한 경험 등에 대한 '개별적, 종합적 배려'를 중점으로 하는 전형이다.
- 2) '사정관전형 집단'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집의 약 45% 안팎이 표집되었다. 전집에 속하는 학생들 가운데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의 비율을 고려하면 이 표집의 크기는 전집의 50% 정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크기는 조사 분석 결과를 전집에 대해 일반화해도 무리가 없는 규모이다.

<표> 사정관전형 집단의 표집 크기와 분포

		(단위: 명)		
	전집	표집(조사성공)	표집 비율	
인문사회계열	112	50	44.6%	
자연공학계열	96	45	46.9%	
경영경제계열	52	24	46.2%	
전 체	260	119	45.8%	

부 학력	중졸 이하	4(3.4)	3(1.5)	7(2.2)
	고등학교 졸업	32(26.9)	36(18.6)	68(21.7)
	전문대학 졸업	1(0.8)	7(3.6)	8(2.6)
	4년제 대학 졸업	56(47.0)	108(55.6)	163(52.3)
	대학원 석사	17(14.3)	25(12.9)	42(13.4)
	대학원 박사	9(7.6)	15(7.7)	9(7.6)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가정의 경제형편	상	5(4.2)	6(3.1)	11(3.5)
	중상	43(36.1)	50(25.8)	93(29.7)
	중	45(37.8)	115(59.2)	159(51.0)
	중하	24(20.2)	18(9.3)	42(13.4)
	하	2(1.7)	5(2.6)	42(13.4)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가정배경을 아버지 학력의 측면에서 보면 두 집단에서 아버지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정관전형 집단은 대학원 석사 이상의 고학력과 고졸 이하의 저학력에 아버지 학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에서 94% 정도의 학생들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중간'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정관전형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 형편을 '중상'이나 '중하'라고 인식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표집을 통해 교정하기보다 수용해야 할 차이로 보인다. 입학사정관 전형과 일반 전형의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라고 볼 점이 있다는 뜻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표적으로 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정관전형 집단에 가정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우리나라에서 좀 더 특수하고 빠른 적응(전략)을 요구하는 '새로운' 전형 양식이라는 점에서 가정배경이 유리한 학생들에게 좀 더 기회가 열려 있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정관전형 집단의 가정배경에서 아버지 학력은 '대학원 석사 이상'과 '고졸 이하'에, 경제적 형편은 '중상'과 '중하'에 다소 편포된 모양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적은대로 전체 평균의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크지 않아 가정배경에서 두 집단 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의 표집 결과는 대입 준비에 관련된 사교육 행위를 조사하고 비교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분석 과정에서 배경 변인

을 통제하기까지 한다면 현재 표집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에서 진술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적어도 A대학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대학들로 일반화 하는 데도 큰 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자료 : 조사 항목과 내용

분석을 위한 자료는 질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질문지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려고 할 때 조사 항목으로 고려해야 할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들은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네 개의 조사항목으로 모아 구분할 수 있다. 대입 준비에 관련된 사교육 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학생의 배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대입 전형에 접근하는 과정(행위와 전략, 인식)과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응하는 인식 및 전략, 사교육에 관련된 행위(참여와 비용 지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인식 등이 조사되었다. 각 항목에 포함된 문항과 조사된 문항의 내용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 조사 항목

범 주	문 항	내 용
학생의 배경	전공과 입학년도	입학한 연도와 계열
	입학 전형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 정시
	부모학력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가정의 경제형편	상, 중상, 중, 중하, 하(5점 척도)
대입 준비 과정	전형 유형별 지원 여부	교과내신, 수능점수, 비교과활동, 논술 비중이 큰 전형 중 지원했던 전형 유형
	전형 유형별 합격 여부	교과내신, 수능점수, 비교과활동, 논술 비중이 큰 전형 중 합격했던 전형 유형
	출신 고등학교의 도움 정도와 내용	도움 정도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1)-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었다(7)의 7점 척도. 도움 내용은 '도움을 주지 않음,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기소개서 작성 도움, 논술 준비, 비교과 활동 지원, 필요한 서류 준비' 중 재학했던 고등학교가 도움을 준 부분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과정*	준비 시작 시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주목하게 된 계기	학교 선생님이 정보를 주셔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다가, 부모님의 권유, 친구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고, 신문 방송 등의 정보, 대입 전문가의 안내, 대학입학설명회 등
	지원 동기	나에게 남에게 없는(입학사정관이 주목할 만한) 특별한 재능(잠재력)이 있어서, 고등학교 기간 중 이력을 잘 관리해 두어서, 지필고사 등 전형방식보다 면접이나 서류 전형이 나에게 유리할 듯해서 등

	전형 준비 시 가장 큰 도움	나 스스로의 계획서 실천, 학교 선생님의 안내와 지원, 부모님의 도움, 학원 도움, 대입상담사의 도움, 선배의 도움 등
	가장 공들인 준비	내신 관리, 이력(‘스펙’)관리, 면접준비, 서류 구비 등
	고등학교의 도움정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1)~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었다(7). 7점 척도.
	고등학교의 도움 유형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필요한 서류 구성과 준비, 면접 준비, 비교과 활동에 대한 안내와 지원 등
	가장 중요한 합격요인	교과 성적, 학생부 비교과 기록, 자기 소개서 등 지원 서류, 가정 배경, 성공적 면접, 국제적 경험과 이력 등
사교육 행위	내신/수능 준비 사교육 여부와 비용	고등학교 1-2학년 시기와 3학년 시기에 각각 내신이나 수능점수 향상을 위한 사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지출한 비용
	내신/수능 준비 사교육 유형	개인교습, 그룹과외, 일반학원, 전문학원, 인터넷강의, 경시대회를 위한 학원 중 고3시기에 받았던 사교육 유형
	제출 서류 준비 사교육 종류와 비용	포트폴리오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지원 서류 작성 등 제출 서류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비용
	장기적 이력관리 컨설팅 여부와 비용	장기적으로 대입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와 지출 비용
	특별활동을 위한 사교육 종류와 비용	봉사활동, 해외인턴, 책 출판, 작품 전시, 해외 연수, 각종 대회 참가, 경시대회 참가, 사회정치적 캠페인 등 특별활동 관련 사교육에 참여했는지의 여부와 비용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인식	입학사정관 전형의 성격	<p>다음 5개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4점 척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성적보다 비교과 활동(봉사활동, 창의체험, 특기활동, 경시대회 입상 등)을 더 중시하는 전형이다. -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도 특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전형이다. - 장기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한 전형이다. - 다른 일반 전형에 비해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전형이다. -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다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형이다. - 다른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역시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다.

*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조사된 문항임

3. 분석

분석은 기본적으로 조사내용에 대해 사정관전형 집단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비교집단과 비교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³⁾. 이를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

3) 분석에서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산출하더라도 사례수에 비추어 그 결과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검증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등의 기초통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IV. 분석결과

1.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대입 준비과정

이 절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대학입학 전형에 접근하는 과정을 비교집단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입 전형에서 어떤 전형에 지원하였고, 어떤 전형에서 합격했는지를 전형특성(중시하는 전형요소)에 따라 조사하여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비교집단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충분히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아울러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이 전형을 거냥하여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1)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 간 대입 준비과정의 차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입 준비과정을 비교집단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에 나타나는 경향이 <표 3>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대입 전형에 대한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의 대응 전략 차이

		(단위: 명(%))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지원했던 전형의 특성	교과내신 중시	60(50.4) ⁴⁾	57(29.4)
	수능 중시	5(4.2)	96(49.5)
	비교과 중시	114(95.8)	25(12.9)
	논술 중시	63(52.9)	117(60.3)
	기타	10(8.4)	14(7.2)
합격했던 전형의 특성	교과내신 중시	31(26.5)	32(16.9)
	수능 중시	0(0.0)	89(47.1)
	비교과 중시	112(95.7)	18(9.5)
	논술 중시	16(13.7)	58(30.7)
	기타	4(3.4)	13(6.9)

4) 중복응답을 허용한 문항임. 표에 제시된 빈도는 교과내신을 중시하는 전형에 지원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빈

대학입학 전형에 대응하는 전략의 견지에서 보면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은 비교적 특정 전형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여러 전형에 ‘분산’해서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집단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정관전형 집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과를 중시하는 전형에 지원한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능을 중시하는 전형을 피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수능을 비롯하여 논술, 교과내신 등을 중시하는 전형에 고루 지원하는 특징을 보인다.

학생들이 합격한 전형을 통해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에서 채택한 전략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입 준비과정에서 학교가 준 도움에 대해서는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비교집단에 비해 좀 더 긍정적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정관전형 집단의 평균은 3.84점, 비교집단의 평균은 3.43점으로 7점 척도의 4점(학교 도움 반, 개인적 준비 반)에 미치지 못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도움보다는 개인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이 인식하는 고등학교 도움 정도*의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정관전형 집단	119	3.84	1.546
비교집단	194	3.43	1.703

* 측정 : 7점 척도(1점: 전혀 도움 안됨, 4점: 학교 도움 반, 개인적 준비 반, 7점: 전적으로 도움)

학교에서 도움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표 5>에서처럼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로 ‘대입전형에 대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관전형 집단보다 비교집단에서 이런 내용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많았다.

도를 의미하며, 괄호 안은 사정관전형 집단에 속하는 학생(119명) 중 교과내신을 중시하는 전형에 지원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함. 이에 따라 표에 제시된 수치를 읽어보면, 사정관전형 집단에서 교과내신을 중시하는 전형에 지원한 학생은 60명이며, 이는 사정관전형 집단에 속하는 학생의 50.4%에 해당함.

<표 5>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이 인식하는 고등학교의 도움 내용 차이

		(단위: 명(%))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전 체
고교 도움 내용	도움을 주지 않았다	11(9.2)	38(19.6)	49(15.7)
	대입전형에 대한 일반적 정보 제공	41(34.5)	97(50.0)	138(44.1)
	자기소개서 작성 도움	17(14.3)	13(6.7)	30(9.6)
	논술준비	5(4.2)	13(6.7)	18(5.8)
	비교과 활동지원	31(26.1)	8(4.1)	39(12.5)
	필요한 서류 준비	6(5.0)	5(2.6)	11(3.5)
	기타	8(6.7)	20(10.3)	28(8.9)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그러나 대입 준비과정에서 학교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쪽은 비교집단보다 역시 사정관전형 집단임을 볼 수 있다. <표 4>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5>에서도 사정관전형 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학교가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들은 학교로부터 대입전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34.5%)받을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대한 지원(26.1%)이나 자기소개서 작성(14.3%)과 같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대입 전형에 대응하는 과정과 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도움의 정도나 내용은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비교집단의 학생들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추론해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른 전형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준비할 수 있는 성질의 전형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이 보다는 이 전형을 겨냥한 준비를 요구하는 특수한 전형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전형에 지원하기보다 비교과를 중시하는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실제로 이렇게 접근한 전형에서 합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데 학교의 도움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학교의 도움을 받는 측면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식이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하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전통적인 사교육 수요 위에 덧대어지는 추가적인 사교육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은 드물다는 것이다. 즉 어떤 학생이 수능, 내신, 논술에 대비하는 사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하는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전통적인 수능, 내신, 논술 사교육과는 다른 종류의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

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비교과 활동에 집중해서 대입전형을 준비하고 접근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합격)에서 유리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만약 비교과 활동이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대학의 노력이 없다면, 그리고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관련된 사교육 수요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와 함께 증폭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사정관전형 집단의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과정

일반적인 대입 준비 과정에서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나타났던 차이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더' 유발한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종류의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에서는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면 이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이러한 인식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추론해 보려고 한다.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한 시기는 <표 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고3이 되어서이다(45.4%). 1, 2학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는 학생들도 각각 25%정도에 달한다. 하지만 중학교 때와 같이 이른 시기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했다고 하는 학생은 5% 정도에 불과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입학사정관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어 학생들에게 아직 익숙한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서 보아야 한다.

<표 6> 사정관전형 집단이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를 시작한 시기

	빈 도	비 율
중학교	6	5.0
고1	29	24.4
고2	30	25.2
고3	54	45.4
전체	119	100.0

입학사정관 전형이 익숙한 전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이 전형에 접근할 수 있었던 계기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체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가(67%)' 발견하게 되어서임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게 된 동기로

주로 '고교 기간 중 체험활동, 특별활동, 비교과 활동 등 이력을 잘 관리해 두어서(43%)'나 '나에게 남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38%)'를 꼽고 있어, 이런 결과들을 근거로 볼 때 입학사정관 전형은 아직 학생들이 대학 진학 경로를 모색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전형이 아니며, 일반적이기 보다 소수의 특정한 조건을 지닌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특수한 전형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사정관전형 집단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게 된 계기와 지원 동기

(단위: 명(%))

		빈도	비율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계기	학교선생님이 정보를 주셔서	20	16.8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다가	80	67.2
	부모님(친구, 선배)이 권하셔서	9	7.6
	친구들(언니, 선배들이 준비하는 것을 보고	3	2.5
	신문방송 등 정보를 접하고	4	3.4
	각 대학의 입학설명회를 통해	3	2.5
전체		119	100.0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동기	나에게 남에게 없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45	37.8
	수능이나 교과 성적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7	5.9
	고교 기간 중 체험활동, 특별활동, 비교과 활동 등 이력을 잘 관리해두어서	51	42.9
	지필고사 등의 전형방식보다 면접이나 서류 전형이 나에게 유리할 듯해서	14	11.8
	기타	2	1.7
전체		119	100.0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준비에서 학생들은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의 계획과 실천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76%)고 인식하였다. 또 학교의 도움이 컸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은 부모님(가족)의 도움이 컸다고 인식하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적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학교의 대응은 아직까지 학생 개인이나 가정의 대응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의 계획과 실천, 가정, 학교의 도움 속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겨냥한 준비는 <표 8>의 중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류 구비(36%), 이력(스펙)관리(35%), 내신 관리(20%)에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대한 이력과 이러한 활동이 잘 드러나게 채워진 서류뿐만 아니라

성적도 모두 함께 고려하는 전형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표 8>의 하단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학생부 비교과 기록(48%)이나 자기소개서 등의 지원 서류(32%)가 합격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전형 양식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8>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 과정

(단위: 명(%))

		빈도	비율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나 스스로의 계획과 실천	90	75.6
	학교 선생님의 안내와 지원	12	10.1
	부모님(가족)의 도움	15	12.6
	선배의 경험담과 충고	1	.8
	기타	1	.8
전체		119	100.0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에서 가장 공들이 준비	내신 관리	24	20.2
	이력(스펙)관리	41	34.5
	면접 준비	8	6.7
	서류 구비	43	36.1
	기타	3	2.5
전체		119	100.0
합격요인	학생부 교과성적기록	10	8.4
	학생부 비교과 기록	57	47.9
	자기소개서 등 지원 서류	38	31.9
	성공적인 면접	8	6.7
	국제적 경험과 이력	2	1.7
	기타	4	3.4
	전체	119	100.0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접근하는 과정을 근거로, 입학사정관 전형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대입 경로(수능시험이나 내신 성적을 갖추어 대학 입학을 추구하는 경로)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이 차선책을 찾는 중에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로이고 일반적이기 보다 특수한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전형 양식으로 인식되고 있

음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대학 입학에 대해 무엇보다 스스로의 계획과 실천을 요구하는 전형 양식이고, 어느 특정한 하나의 요소보다 다양한 요소, 이를 테면 비교과 활동, 서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형 양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사교육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과 유발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제도가 최근에 도입되고 아직까지 그 정보가 소수의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 수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가 확대되고 이 전형에 대한 준비가 장기화 된다면 이런 준비를 관리해주는 컨설팅에 관한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의 계획과 실천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전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사교육 수요가 유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학교의 대응이 미흡하면 진로 추구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학교 밖의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쟁자들보다 더 나은 활동(스펙)을 쌓고 그 이력을 반영하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사교육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2.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의 사교육 행위

이 절에서는 앞에서 추론해 보았던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행위(참여와 비용지출)를 '더' 조장하지 않는지, 전통적인 사교육 행위와 '다른' 종류의 사교육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수능/내신 대비 사교육 행위와 입학사정관 전형의 요소를 고려한 대입 제출 서류 준비 및 특별활동에 관련된 사교육행위에서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생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차이가 사교육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1) 내신/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행위

<표 9>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내신이나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은 비교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에 이런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9> 고등학교 시기 내신/수능 대비 사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전 체	X ²
고 1-2	받았다	82(68.9)	146(75.3)	228(72.8)	1.504
	받지 않았다	37(31.1)	48(24.7)	85(27.2)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고 3	받았다	58(48.7)	122(62.9)	180(57.5)	6.041***
	받지 않았다	61(51.3)	72(37.1)	133(42.5)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 p<.001

내신이나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해 지출한 사교육비⁵⁾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10>에서 보면 사정관전형 집단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가 되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같은 시기에 비교집단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와 비교해도 뚜렷하게 적었다.

<표 10> 내신/수능 대비 사교육비 지출

(단위: 명/만원)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고교1-2 사교육비	사정관전형 집단	119	31.83	38.216	.737
	비교집단	194	28.97	29.377	
고3 사교육비	사정관전형 집단	119	24.20	42.236	2.014*
	비교집단	194	28.16	38.798	

* p<.05

이러한 차이를 두 집단에서 가정배경이나 지역 등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 다시 살펴본 결과 <표 11>에서처럼 여전히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비교집단의 학생들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의 사교육비는 '0원'으로 처리하였으며, '0원'이 많은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자연로그화한 값을 활용하였다. 단, 기술통계치로 제시되는 숫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는 '만원' 단위의 사교육비로 분석하였고, 집단 간 평균 사교육비의 차이를 분석할 때는 자료(측정값)의 분포를 고려하여 자연로그화한 값을 사용하였다.

<표 11> 고3 내신/수능 사교육비에 대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영향 : 회귀분석

내신/수능 사교육비	모형1	모형2
절편	2.037**	-.026**
사정관전형 집단 더미(비교집단 기준)	-.450(-.113)*	-.439(-.111)*
부모학력		.126(.151)**
가정의 경제형편		-.009(-.004)
서울 더미(중소도시 및 읍면 기준)		.680(.173)**
광역시 더미(중소도시 및 읍면 기준)		-.383(-.083)
R2	.013	.092

* p<.05, ** p< .01

이상의 결과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행위를 더 조장하고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분석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가 되면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은 1-2학년 시기에 했던 내신이나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한 사교육 행위를 줄이고 좀 더 입학사정관 전형을 겨냥한 준비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대입 제출서류 준비 관련 사교육 행위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일은 대입 준비과정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절차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전형의 성격상 제출된 서류에 담긴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사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제출서류 준비가 사교육 행위(상담 및 컨설팅 참여 및 비용 지출)에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

<표 12>에서는 대입 제출서류, 이를 테면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지원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작성하기 위한 컨설팅과 관련해서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의 경험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대체로 두 집단에서 어떤 종류의 컨설팅에도 참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 비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제출서류 준비에 관련된 컨설팅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아직 소수이고, 현재는 사정관전형 집단 보다 비교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서류 준비에 관련된 컨설팅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표 12> 대입 제출서류 준비 관련 사교육(컨설팅) 참여 여부

		(단위: 명(%))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전 체
서류 준비 사교육(컨설팅)	참여경험 있음	14(11.8)	37(19.1)	51(16.3)
	참여경험 없음	105(88.2)	157(80.9)	262(83.7)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서류준비에 관련된 컨설팅을 유형별로 모아 구분한 후 두 집단의 참여 경향을 비교해 보면 앞에서 나타났던 경향은 <표 13>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 외의 다른 일반전형에서도 자기소개서와 지원 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서류를 준비하는 데 관련된 컨설팅 업체는 수시 전형과 함께 꾸준히 활동을 유지하고 증가시켜 왔을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학교 밖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쪽은 사정관전형 집단 보다 오히려 비교집단의 학생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3> 서류준비 사교육(컨설팅) 유형별 참여 경험

		(단위: 명(%))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서류 준비 사교육(컨설팅) 유형	포트폴리오 준비	4(3.4)	6(3.1) ⁶⁾
	자기소개서 작성	11(9.2)	16(8.2)
	학업계획서 작성	6(5.0)	4(2.1)
	지원 서류 작성	6(5.0)	19(9.8)
	기 타	3(2.5)	5(2.6)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입 제출서류 준비와 관련해서 사교육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최근 도입된 제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입학사정관 전형의 확대와 함께 관련 사교육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6) 중복응답을 허용한 문항이므로, 각 칸의 빈도는 해당 유형의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수이며, 괄호 안의 비율은 해당집단 전체 학생 중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입학사정관 집단 중 포트폴리오 준비 관련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4명이며, 이는 입학사정관 집단 전체(194명) 중 3.4%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3) 특별활동 관련 사교육 행위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따라서 이미 앞에서 추론했던 것처럼 학생들은 다른 학생을 능가하는 특별한 활동 이력을 쌓기 위해 사교육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이 사교육에 관련되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특별활동 관련 사교육행위란 대입 전형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하는 여러 활동들을 의미한다. 예컨대 봉사활동(해외포함), 현장 인턴, 책 출판, 작품전시, 해외연수, 각종 대회, 경시대회, 사회정치적 캠페인 등과 같은 활동들이 있다.

사정관전형 집단에서는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특별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교집단의 학생들보다 뚜렷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참여율은 비교집단에 비해 1.5배 정도 높았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다른 두 유형의 사교육행위와 비교해도 이 차이는 상당히 두드러졌다.

<표 14> 특별활동 참여 여부

					(단위: 명(%))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전 체	X ²
특별활동	참여경험 있음	82(68.9)	77(39.7)	154(49.2)	25.191**
	참여경험 없음	37(31.1)	117(60.3)	159(50.8)	
전 체		119(100)	194(100)	313(100)	

** p<.01

특별활동의 종류에 따라 두 집단의 참여 경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표 15>에 나타난 것처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대부분의 활동에서 비교집단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에서 대체로 봉사활동, 각종대회, 경시대회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은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두루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주로 봉사활동, 각종대회, 경시대회에 집중해서 참여하는 양상이 있다. 활동의 프로파일 자체가 두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특별활동 종류별 참여

(단위:명(%))

		사정관전형 집단	비교집단
특별활동 종류	봉사활동(해외포함)	38(31.9)	28(14.4)
	현장인턴	10(8.4)	2(1.0)
	책 출판	7(5.9)	0(0.0)
	작품전시	4(3.4)	0(0.0)
	해외연수	8(6.7)	6(3.1)
	각종대회(발명, 캠프 등)	51(42.9)	30(15.5)
	경시대회(공인영어시험 포함)	51(42.9)	51(26.3)
	사회정치적 캠페인	11(9.2)	4(2.1)
	기타	1(0.8)	0(0.0)

이런 양상은 특별활동에 지출하는 비용⁷⁾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6>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사정관전형 집단에서는 특별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이 비교집단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특별활동 비용으로 사정관전형 집단은 평균 37만원 정도를, 비교집단은 평균 17만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임을 볼 수 있다.

<표 16> 특별활동에 지출하는 비용

(단위: 명/만원)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t
특별활동 지출비용	사정관전형 집단	116	0	500	36.57	81.626	-4.991**
	비교집단	191	0	510	17.25	62.570	

** p<.01

이런 차이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인들을 고려한 후에도, 두 집단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계속 유지되었다. <표 17>의 회귀분석 결과에서처럼 부모학력, 가정의 경제적 형편, 출신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모형에서 모두 통제한 후에도 사정관전형 집단이 지출하는 특별활동 비용이 비교집단보다 여전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7) 특별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은 활동 종류별로 학생 개인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특별활동 비용을 조사할 때 참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었다. 분석에서는 극단치라고 판단되는 천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는 제외하였다.

<표 17>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회귀분석

특별활동 비용	모형1	모형2
절편	.763**	-2.441**
사정관전형 집단 더미(비교집단 기준)	1.011(.275)**	1.080(.293)**
부모학력		.207(.267)**
가정의 경제형편		.051(.022)
서울 더미(중소도시 및 읍면 기준)		.077(.021)
광역시 더미(중소도시 및 읍면 기준)		-.571(-.134)*
R2	.076	.176

* p<.05, ** p< .01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특별활동에 관련된 사교육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비교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특별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활동 이력을 쌓은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다면 앞으로 특별활동에 관련된 사교육 행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나 이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불순하게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사교육 문제에서 보면 특별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나 비용 지출은 억제하고 줄일 필요가 있는 현상이지만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면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특별활동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겨냥하는 전략적인 활동 이상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을 좀 더 신중하게 추론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학생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3.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

다음 <표 18>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다양한 진술에 대해 사정관전형 집단의 인식과 비교집단의 인식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각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4점 척도(1점: 전혀 동의안함, 4점: 전적으로 동의함)로 측정하였고, 두 집단 간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인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8> 사정관전형 집단과 비교집단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인식† 평균 차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교과성적보다 비교과활동을 더 중시하는 전형이다	사정관전형 집단	119	2.98	.610	-1.694
	비교집단	192	2.85	.716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교과성적도 특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정관전형 집단	119	3.39	.554	-2.338*
	비교집단	192	3.21	.708	
장기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한 전형이다	사정관전형 집단	119	3.20	.684	1.083
	비교집단	192	3.29	.730	
다른 일반전형에 비해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전형이다	사정관전형 집단	119	2.94	.895	1.877
	비교집단	192	3.13	.843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다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형이다	사정관전형 집단	119	3.45	.697	-7.526***
	비교집단	192	2.71	.907	
다른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역시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다	사정관전형 집단	119	2.72	.700	.749
	비교집단	192	2.87	.805	

† 인식의 측정 : 4점 척도(1점: 전혀 동의 안함, 2점: 동의 안함, 3점: 동의함, 4점: 전적으로 동의함)

* p<.05, *** p<.001

분석결과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인식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성질은 두 가지 정도를 제외 하면 비교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교과성적보다 비교과활동을 더 중시하는 전형이고, 장기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한 전형이며, 다른 일반전형에 비해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전형, 다른 일반전형과 마찬가지로 역시 성적이 중요한 전형이라고 인식하였다.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나 비교집단의 학생들이 대체로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듯이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지배적이 되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응하여 비교과활동을 위한 부가적인 투자나 장기적인 이력관리의 행위가 확산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비교과도 중요하지만 교과성적도 특정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전형이라는 진술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다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형이라는 진술에서는 두 집단 간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사정관전형 집단의 학생들이 비교집단의 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진술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다보면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형이라는 진술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이들이 참여했던 특별활동을 단순히 불순하게만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투자를 더 요구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행위를 단순히 사교육으로 규정하고 문제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러한 활동을 위한 비용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만 보면, 사교육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상에서 파악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자가 더 필요하고 장기적인 이력 관리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진로를 탐색하고 추구하는 과정이라면 이런 행위를 단순히 비교육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V. 논의

이 연구의 취지에서 볼 때 그리고 실지로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와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면, 입학전형제도(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해서 두 측면의 논의 또는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학사정관 전형이 포괄적인 맥락에서 어떤 발전을 모색해야 할지에 관련된 측면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일반적으로 어떤 성격의 전형 또는 제도로 인식되는지 조사해 본 결과를 토대로, 이 제도가 어떤 발전을 모색해야 할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교육 행위에 대한 영향의 측면을 검토 논의할 수 있다. 이 측면은 이 연구가 핵심적으로 다룬 문제 영역으로 사교육 행위와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인식의 시사점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진학경로를 모색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전형 양식이 아직 되지 못한 상태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어떤 경로로 입학사정관 전형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질문 조사해 본 결과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다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결과는 일반적인(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내신 성적 등을 갖추어 대학 진학을 추구하는) 양식으로 대학 진로를 뚫기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학생들이 ‘특별한’ 경로(전략적인 경로)를 애써 찾은 결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발견하게 되는 경향이 짙음을 시사한다.

좀 더 직접적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보는지 조사해 본 결과에서도 대체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입학한 학생이나 다른 일반적인 경로로 입학한 학생들이 함께) ‘일반 전형’과 구분되는 특수한(소수의 특정한 조건을 지닌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전형

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런 인식이나 경향이 지배적이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학입학 전형의 일반적인 양식으로 받돋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대학입학 전형에서 '마이너리그'의 위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전형 양식이라면 대학입학 전형 양식으로서 보편성을 확보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식을 고착시키게 되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중의 전형 양식으로 일반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정책을 대학 수준에서나 국가 수준에서 그 의미 구성이나 확산에 유의할 점이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단순히 '독특한' 학생에 주목하는 전형 양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견지에서 대학 교육의 기회에 합당한 후보 학생을 찾는 전형 양식이라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구성해내야 할 것이다. 물론 입학사정관 전형이 주요 입학 경로가 된다는 사실 자체를 널리 알리는 일도 현재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입학사정관 전형과 '사교육' 경향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 행위를 더 조장하고 있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닌 다른 경로로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이 일반 학과 성적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내신이나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한 사교육")을 받는 경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시기에 그런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과한 입학생들에게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반면 "대입전형에 대비하여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별활동(봉사활동, 경시대회 등)에 참여" 했던 경험은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들에게 비교적 뚜렷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해외 봉사활동 포함), 현장 인턴, 책 출판, 작품 전시, 해외 연수, 발명대회나 캠프 등 각종 대회, 경시대회 등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더 많고, 이에 따른 경비도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또는 과외 활동과 관련해서 일반 전형 입학생들과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들이 서로 다른 행위 또는 투자 경향을 보이는 점은, 평균적으로 '사교육 비용'의 차이를 상쇄해서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짐작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하여 '서류' 제출이 중요한 절차임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런 서류 준비 과정이 '사교육'(컨설팅 등)에 연루되는지도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서도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비교 집단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류 준비에 관련된 사교육의 경향은 집단(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생과 일반 전형 입학생)을 불문하고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짐작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적어도 현재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입학사정관 전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해 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의 경향을 더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다른 전형에 비하여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전형”이라는 생각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 “장기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한 전형”이라는 데는 더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였다. 이런 경향의 인식이 고착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응한 ‘부가적인’ 투자나 이력관리의 행위가 확산될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가 더 필요하고 장기적인 이력관리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단순히 대학 입학에 위한 전략적 비용 지출 과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를 모색하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면, 그런 행위를 단순히 ‘사교육’으로 규정하고 불순하게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듯하다. 다만 입학사정관 전형이 고등학교 단계 또는 그 이전 단계에서까지 비용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만 보면, 이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는 그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입학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입학사정관에게 돋보이기 위한 투자)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의 정책 지향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여기게 된다. 첫째, 이른바 ‘비교과 활동’이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종합적인 정보(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격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인 바, 그 종합적인 정보에 속할 활동 내용들이 학교를 벗어나 이루어지고 채워져야 한다면 필경 그 비용은 꾸준히 상승해 갈 것이다. 봉사활동, 특별활동, 클럽활동 등을 학교가 조성하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이 존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교과 활동의 고려가 상대적 경쟁의 지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은 ‘객관성’ 또는 ‘투명성’을 띠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이 고려하는 모든 서류(정보)들에 대하여 일종의 평가 지표들을 상정하고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르려는 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성을 유지한다면 대학진학 희망자들 사이에 활동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리라는 것과 이에 따른 비용 지출 경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전형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활동’의 평가는 그 내면적 가치와 깊이를 해당 개인과 관련해서 가늠하는 ‘절대평가’의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보다 돋보이기 위한 활동이나 이력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활동을 진정한 진로 모색의 활동이나 내면적 동기의 활동과 구분해낼 수 있는 ‘전형의 암묵지’(tacit skills for application reading)를 계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새로운 활동 유형(repertoire)에 대한 인정의 경향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일반화 되면서 입학사정관의 시선을 끌기 위한 활동의 항목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개발되어 갈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사교육 시장에서 이전 진학 희망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접근의 활동이나 이력을 만들고 마케팅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제까지 일반화되지 않았던 학생들의 정치활동, 해외 활동, 명사들과의 교류 활동, 출판과 전시 등이 더 다양해지고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런 활동의 평가에서 그 '기발함'이나 '드뭉'에 눈멀지 말고 '장식성(裝飾性)'을 간과할 수 있는 전형 안목이 요구된다. 이런 장식적인 활동에 대한 거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장식적 활동의 효과에 대한 '신화'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의 사회적 비용은 제어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제안된 방향에 함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활동의 가치나 두드러짐이 지나치게 '돈'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사정 자료에서 경시하는 일종의 '차이 조정'의 원칙도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 돈의 뒷받침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는 활동 또는 만들어 가질 수 없는 이력 등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전형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가의 장비나 도구, 장기적인 해외 체류, 높은 가격의 참여 비용 등이 전체되는 활동을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하기 보다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활동의 측면에서도 그와 같은 '고가'의 활동에 상응하는 면모가 있는지 견주어 평가하는 양식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 결론

이 연구는 비교적 좁게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교육에 어떤 여파를 미치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의 문제를 증폭시키리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현재로 그런 기미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사교육에 대한 입학사정관 제도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좀 더 체계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대학의 입학생을 표집으로 조사 분석하는 방식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부수적 효과들을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합격자(입학자)뿐만 아니라 합격하지 못했던 지원자들 그리고 아직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나의 대학에 국한된 연구 보다는 대학 사이의 협력을 통해 좀 더 일반화 가능한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제2의 효과(secondary effect)'에 관심을 둔다면 단순히 사교육의 측면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와 분석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나 학부모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피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 시장의 반응이나 대응도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학사정관 전형이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따라 다양한 융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검토하는 작업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한 결과로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후적으로'만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그칠 때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사교육에 대한 효과 자체를 추정하기도 불완전하지만, 추정하더라도 그 원인을 포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안게 된다. 원인 분석을 위한 '맥락'의 조사 분석이 연구들 밖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연구와 정책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진 연구가 이상과 같은 확장의 기대에 비추어 볼 때 취약하고 제한적이지만 연구와 정책의 출발점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조사된 반응 경향(주요 문항에 대한 반응치)을 기준으로 삼아 같은(또는 동질적인) 조사 결과에서 앞으로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변화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입학사정관제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소 굵게 접근한 한계를 지니기는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 입학생들이 전형에 접근해 갔던 과정, 그들이 지녔던 인식과 전략, 그리고 사교육에 관련된 행위 양상 등을 조사했다. 이런 측면은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속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항목을 연계하여 조사 시기에 따른 경향을 살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리 잡고 가고 있는지 적어도 개연적으로는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중(2011). 입학사정관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과 제도의 한국적 토착 양태 분석. 2010년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연구보고서. 중앙대학교 입학처.
- 강태중·이성호·김동민(2009). 입학사정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연구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0(4), 151-175.
- 김도식(2009). 입학사정관제, 약인가? 독인가? . **철학과 현실**. 통권 제81호. 88-97.
- 김승태(2010). 입학사정관제도와 사교육의 연관성에 관한 소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1), 237-264.
- 김용기(2008).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발전방안. **한국교육논단**, 7(2), 127-147.
- 김일혁(2009). 입학사정관제 운영 평가 지표 개발. **교육평가연구**, 22(3), 681-715.
- 박제남 외(2008). 대학입학사정관 정착 모형 개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혜림(2009).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 **교육방법연구**, 21(1), 21-46.
- 배성아·안정희(2011). '입학사정관 전형 유형' 분석을 통한 입학사정관제도의 발전 방향 탐색 : 초기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40, 115-139.
- 안선화·정일환·주동범(2009). 입학사정관제의 합리적 정착을 위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6(2), 7-33.
- 이필남(2011). 대학 입학사정과 전형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제5회 한국교육중단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245-276.
- 양성관·정일환(2007). 미국 대학입학제도의 전형자료, 입학사정관제도 및 기여입학제도 분석 : 개별적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3), 167-190.
- 정일환·김병주(2008).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4), 113-139.
- 교육인적자원부(2004. 10. 28.)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0. 4. 6.). 대학의 자율적 입학사정관제 운영방안 발표 : 대입전형 선진화를 위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제시. 보도자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2. 6. 21.). 2013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 발표. 보도자료.
- 한국대학신문(2012. 10. 18) 창간기획_입학사정관제 도입 5년, 이대로 괜찮은가1

* 논문접수 2012년 11월 5일 / 1차 심사 2012년 12월 5일 / 게재승인 2012년 12월 8일

* 강태중: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었으며, 현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 E-mail: tjahng@cau.ac.kr

* 송혜정: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강사이다.

* E-mail: hjsong72@korea.com

* 김진경: 중앙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 E-mail: kimjk1230@hanmail.net

Abstract

An Analysis of Possible Impacts of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on College Preparation Behaviors*

Gahng, Tae-Joong**

Song, Hye-Jung***

Kim, Jin-Kyung

The study examined the impacts of Korean Admissions Officer(AO) system on three areas of college preparation behaviors, which are related to 1)the college entrance exam(Korean SAT) or GPA, 2)the preparation for application materials such as portfolios and essays, and 3) extracurricular activities. Utilizing the data from a university in Seoul, the study compared two groups of students(those who had gotten admission through the AO track and those who had gotten admission otherwise) with regard to their strategic behaviors for college admission and conceptions on the AO system. Based on this comparison the possibility that the needs for extra preparation for college admission might be was examined and discussed. More directly the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participation and spending for these extra preparations.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two groups were not different in the amount of spending for college preparation but differ in the areas of investment. The AO group tended to invest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while the other group in various general preparations including Korean SAT or GPA. Since the two groups showed different college preparation(investment) behaviors, it is hard to conclude that the AO system would causes more spending for college preparations. If AO system is adopted by mor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the future and students begin to perceive the system as a major track of college admission, however, the needs for extra preparations would be felt by more students and private spending could increase. On the other hand, more thought needs to be given to the possibility that extra preparation behaviors are not necessary a evil. The behaviors might do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Chung-Ang University.

** First author,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Instructor., Chung-Ang University

educationally desirable functions that would help the students explore their career path in an authentic sense, rather than might cause extra financial burden.

Key words: college preparation behavior, Korean Admissions Officer System, private tutoring, extra curricular activities, college entrance system